

보도해명자료 (‘19. 3. 19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최근 원전 감소에도 불구하고,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
‘30년 발전부문 미세먼지 ‘17년 대비 약 62% 감축 전망
(해럴드경제 3.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최근 원전 발전량 감소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며, 화력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
- ◇ ‘30년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‘17년 대비 62% 감축 전망
- ◇ 3월 19일 해럴드경제, <탈원전에 환경 뒷걸음질 치는 대한민국>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- 원전 대신 각종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고 있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최근의 원전발전량 감소는 ‘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
 - * 원전 정비일수 : (‘15) 1,274일 → (‘16) 1,769일 → (‘17) 2,565일 → (‘18) 2,917일
 - * 원전 이용률 : (‘15) 85.3% → (‘16) 79.7% → (‘17) 71.2% → (‘18) 65.9%
- 또한 석탄발전을 비롯한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
 - * 발전부문 미세먼지 : (‘15) 3.63만톤 → (‘16) 3.42만톤 → (‘17) 2.87만톤 → (‘18) 2.49만톤(잠정)
- 또한 동 기사는 원전 감소로 석탄 및 LNG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하나, 이는 사실이 아님

- 8차 수급계획에서는 원전 및 화력발전(석탄, LNG)이 감소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
<발전량 비중 및 미세먼지·온실가스 전망>

	원전	석탄	LNG	신재생	기타	미세먼지	온실가스
‘17년	26.8%	43.1%	22.2%	5.6%	2.3%	3.4만톤	2.63억톤 (‘16년)
‘30년 (8차 계획)	23.9%	36.1%	18.8%	20.0%	1.2%	1.3만톤 (62%↓)	2.37억톤

- 이로 인해 ‘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1.3만톤, 온실가스는 2.37억톤까지 감축할 계획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 장(044-203-5150)
장지혜 사무관(044-203-5154)